

동구, 여성능력개발의 새로운 거점 '여성희망창작소' 개소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 복합소통공간 사무실·아이디어공유방·돌봄방 등으로 구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2일 여성들 역량 강화에 새로운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커뮤니티 복합소통공간인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는 총장로 4가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커뮤니티실, 아이디어 공유방, 창업마중물

방, 돌봄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구는 지난 7월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는 향후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다양한 여성 역량 강화 활동 및 여성 네트워크

크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동구는 그동안 마을사랑채를 활용한 여성동아리 사업 '동구만세 공감수다방' 운영,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등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개소한 동구 여성희망창작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위한 또 하나의 소통공간으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12일 개소한 '동구 여성희망창작소'가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동구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서구 농성2동, 불빛 초인종 설치 호평 초인종으로 만드는 어르신들-이웃 연결고리

광주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허순석)가 농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도덕영) 회원과 함께 청각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및 청각장애인 5가구에 LED무선 불빛초인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농성2동은 낙후된 주택이 많기도 하고 특히, 초인종이 없거나, 있어도 고장난 경우, 노인성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이 사람이 집에 있어도 인기척을 못 듣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농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 간 고립해소와 소통을 위해 '어깨동무발달단 긴급지원119 초인종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불빛초인종은 청각장애인 가정에 방문객이 벨을 누르면 불빛이 작동해 밖에 사람이 온 것을 알려줘 집 안에 있던 청각 상실이나 방문객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무인초인종 설치 수혜를 받은 김모 어르신은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잘 들리지 않아 열어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초인종 설치 덕분에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덕영 농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불빛초인종 설치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허순석 농성2동장은 "불빛 초인종이라는 연결고리로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지역내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행복한 농성2동 복지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산구, 명사 초청 특강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향후 경제상황을 전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주관한 광산경제아카데미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와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먼저 최배근 교수가 지난 8일 '경제 대전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과 좌담회를 가진 데 이어 모종린 교수는 12일 '골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사전에 신청한 광산구 기업대표와 소상공인은 현장에서 강연을 듣고, 광산구 공직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과 별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구 제공

국내를 대표하는 두 경제 전문가의 명품 특강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공직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높이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경제분야 명사 초청 특강은 경제도시 광산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국내·외 경제정책 및 전망을 학습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행탁 기자

광주시구청장협의회, 민생안정자금 특별지원

광주시 5개 구청이 정부와 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학교 밖청소년, 종교시설 등에 대해 특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과 별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꽃집과 서점, 문구점, 공공영역 문화·체육시설의 비정규직 강사가 포함됐으며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에게도 10만 원이 지급되고 등록된 중

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5개 자치구 총 6천680여 개 업체에 20억 9천여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각 구청별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 또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5개 자치구는 1차 신청분은 10월 말까지, 2차 신청분은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관 기자

남구, 적극행정 우수 사례 6건 선정·발표 '으뜸孝 남구TV 실버 노래자랑' 최우수 사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하반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발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고령정책과에서 추진한 '으뜸孝 남구TV 실버 노래자랑'이 차지했다. 실버 노래자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간 화합 도모 및 효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실버 노래자랑에는 지금까지 관내 어르신 500여명이 경연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실력과 가수들은 오는 12월 10일 예정인 대망의 결승전에 출

출동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2건을 선정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결정형 마을설계 방식으로 추진한 '효덕동 분동'은 인구 과밀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진월동과 효덕동으로 나뉜 뒤 효덕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대기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홍보담당관부서에서 추진한 '주간 남구' 정책 사업으로, 구정 주요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 구청 공무원들이 한주간 소식을 동영상 콘텐츠로 손수 제작해 매주 한차례씩 제공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윤규진 기자

평범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문화축제 / 월출산 기차랜드 / 구림전통마을 / 월출산 국화축제 / 마한축제 / 기차밧길 / 한국트러트가오션터